

Theme 0. 들어가는 글

1. 수능 영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에서 수능 영어를 공부하는 고등학생·N수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을 것이다. “이딴 걸 푸는 게 나중에 무슨 쓸모가 있을까?” 솔직히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지금 당장 유튜브에 들어가 수능 영어를 검색해보면 원어민들에게 수능 문제를 풀어 보게 하는 영상이 수십 개는 나온다. 그 영상들의 결론은 대부분 비슷하다. ‘고등학생들이 풀기엔 너무 어려운 것 같고, 한 번도 보지 못한 단어도 있다. 이걸로 영어의 어떤 부분을 평가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나는 영어 선생님인데도 어렵다.’

하지만 1994학년도 첫 수능이 치러진 이래, 대한의 수험생들은 이런 시험을 보고, 고득점을 받고, 대학에 잘만 갔다. 왜 그럴까? 그건 수능 영어는 시험 과목이기 때문이다. 수능 영어영역은 처음 보면 원어민에게도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시험이기 때문에 성적을 올릴 방법이 존재하며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 온 것이다.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의 설명에 따르면 수능 영어영역 시험은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달성 정도와 대학에서 수학하는데 필요한 영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며, 간접 쓰기를 포함한 독해 능력 측정을 기본으로 한다.

주저리주저리 있어 보이게 써 놓았지만, 간단히 표현하면 그냥 ‘잘 읽고 잘 풀어라’라는 뜻이다. 정리하자면 수능 영어영역 시험은 영어의 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 영역 중 듣기와 특히 읽기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며, 고등학교 영어 교육과정을 잘 이수했는지, 그리고 대학에서 영어로 된 교재를 읽고 수업을 따라갈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2. 그건 알겠고, 그래서 나보고 어찌라고?

워워, 진정하시라. 이제부터 그 잘 읽고 잘 푸는 법을 알려드리겠다고.